

2018.4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8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8.4.24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김종문, 이승선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6	-	1	13	-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1	-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3,4월
보도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를 제안하는 토론 프로그램 활성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재활용쓰레기 문제와 대책(4/15)”, “블록체인 산업화 방안(4/1)” 등 방송	4월
교양	라디오프로그램 이웃들과의 정다운 교감을 나누는 코너 지속적으로	라디오 “FM모닝쇼” 코너의 “떡 드세요” 우리 이웃들 사연을 전달, 당첨된 사람에게 떡 전달하며 사랑을 나눔.	계속
교양	건강프로그램 “건강밥상” 레시피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법 소개	건강플러스 TV프로그램 “건강밥상” 미더덕(4/7), 달래(4/14), 멥게(4/21) 등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소개	4월
교양	생활정보프로그램에 아이들과 학부모 연령층 이외 어르신도 가볼만한 곳 소개	“아침이 좋다” 생활정보프로그램에 정선(4/12), 함양 창원마을(4/13), 영월(4/19) 등 소개	4월
보도	대전지역 미세먼지 보도 시 충남특정지역(화력발전소) 영상사용 자제를	뉴스데스크 “우리 지역 미세먼지 수준(4/7)” “대전 미세먼지(4/15)” 보도 시 대전지역 상황 대전지역상황을 영상으로 처리	4월
보도	저녁 이브닝뉴스 사라져 아쉬움 남아	저녁시간대 “뉴스콘서트 대전·세종·충남 신설(4/23부터)”	4월
보도	뉴스데스크 보도 대상, 관점의 다양성 증가(유성기업 청문회, 노동자 산재소송 등) 계속 이어지길	뉴스데스크 “충남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유성기업 직장폐쇄 일부 불법 판결(3/29)” 등 소외층 보도	3월
보도	뉴스제작 시 반론 보장 장치 마련해야	뉴스데스크 “시민단체 이승만 동상 철거 요구”(4/19) “국가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유감”(4/6) 찬반 입장 소개	4월
보도	영상자료 출처 정확하게 밝혀야	호남고속도로 화물차량 사고(4/13)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출처 밝혀	4월
보도	취재원 음성, 영상 모자이크 처리 확실하게	“대입정책 급변, 현장불안감 최고”(4/10) 모자이크 처리	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7.05.01- 18.04.30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7.05.01- 18.04.30

*신성철, 송길현, 김종문, 함진호, 김은주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4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데스크(4월19일)에서 4.19 관련 배재대학교 이승만 동상 철거 문제와 목척교 4.19 발원지에 대한 보도가 신선했다.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뉴스가 신선해진 느낌이다. 4월 20일 뉴스데스크의 일자리가 복지 보도에서 마음이 따뜻함이 느껴졌고, 바리스타 배중섭님의 인터뷰 내용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다. 앵커의 손앞에 마우스가 자꾸 신경 쓰였다. 테이블 높이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었다(김은주).	지역의 3.8 민주의거에 관한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템 발굴과 현장 조명을 위해 기자들이 적극 노력하겠다. 뉴스센터의 앵커석 높낮이와 카메라 구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토록 하겠다.			
보도	안면도 틀립축제 보도 관련(뉴스데스크 4월21일) 틀립 영상을 바탕에 깔고 화면 왼쪽 가운데 쪽에 조그마하게 시민 인터뷰 화면을 담은 것이, 영상미가 있었고 보기 좋았다. 시청자들도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영상미나 인터뷰 내용에 각별히 신경 쓴 느낌이다.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관련 보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용어를 쓴 점에서 사려 깊음이 느껴졌다. 금자된 감자 보도를 보며, 앵커의 표정도 중요함을 느꼈다. 보도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다(김은주).	달라진 대전MBC 보도는 뉴스 주제 선정부터 화면 구성까지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친절한 뉴스'를 지향하고 있다. PIP 등 다양한 편집 기법을 활용해 주제와 상황에 맞는 역동적인 뉴스화면을 만들도록 하겠다. 또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불편 없이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할 것이며 용어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		
교양	시사플러스(4월12일)에서 "기후변화 속, 건강한 산림을 위한 길은?"이라는 타이틀로 산림문제를 다루었다. 인터뷰를 적절히 끊고 붙이는 등으로 편집이 매끄럽게 보인다. 아나운서의 호흡과 인터뷰이의 호흡차이로 인하여 중간에 맥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편집을 잘해서 갑자기 호흡이 느껴지지 않아서 보기 편했다. 초반에 식목일을 앞으로 당기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작은 주제를 통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끈 다음 우리나라 산림 관련 역사, 정책방안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전개가 마음에 들었다(김은주).	칭찬에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더욱 좋은 방송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적한 바대로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의제를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교양	건강플러스(4월7일)의 요리코너 배경음악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기타와 피아노 음악이 연밸런스). 완성 요리를 보여줄 때 카메라 구도가 비스듬한 것이 아쉽다. 완성된 요리를 보여줄 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카메라 워킹의 경우 개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촬영과 편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좋겠다(정철상).			
보도	‘시사토론M’(4월8일 방송)에서 “시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한 길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 앞서 영상을 보여 주어 사건과 현실 이해에 도움이 되어 좋았다 시민들에게 소방현실과 소방출동범위 등 좋은 정보를 준 것 같다. “여성소방관이라 힘들지 않냐”는 질문은 적절하지는 않은 듯 보인다. 남자도 힘든데 성별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정철상)	토론 진행시 패널에 대한 질문의 중립성 등에 더 신경 쓰겠다.		
교양	TV특강(4월16일) “사람을 살리는 웃음”을 모니터하였다. 처음 인사를 시작할 때 억지로 웃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도록 가벼운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웃음을 유도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지만 방청객과의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여 강사와 방청객 간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건 좋았다(정철상).	<TV특강>은 전국 MBC네트워크 11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스튜디오 특별 공개강좌 프로그램이다. 매회 품격 있는 강의로 지역MBC 네트워크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적한대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녹화를 진행하다보면 이런 어색한 현장 분위기가 전달되는데 이럴 경우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이벤트를 충분히 해야겠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어렵다면 오프닝은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녹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제작에 참고 하겠다.	○	
교양	시사플러스(4월19일) “행복 입양하기 위한 조건-입양특례법 논란”을 시청하였다. 입양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들 소상히 보여주었다. 입양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현실적으로 와 닿게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다. 입양 부모에 관한 과대포장을 배제하고 싶다는 부모의 인터뷰 인상적이었다. 입양에 대한 법안 개정을 다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양기관, 부모, 전문가 의견 다뤘는데, 충실한 내용이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대단히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사회적 편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적어(데이터나 통계 등) 아쉽다(송길현).	우선 제작진의 노력에 대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 더 충실하고 빈틈이 없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	○	
보도	대전MBC에 “시사토론M”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이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다. MBC의 “100분 토론”과 같은 시청자들이 참여가 가능한 토론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어떨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성격의 토론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면 열기도 뜨거울 것이고 많은 사람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특별 토론회 등 다양한 포맷을 시험 중이다. 시청자 참여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	○	

	들의 이목도 집중시킬 것이다. 현재의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토론 M" 구성과 진행 방식의 변화가 어렵다면 "100분 토론" 스타일의 특집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겠다(함진호).			
보도	농촌의 갈등문제는 대체로 3, 4가지로 볼 수 있다. 축사, 토지, 지적 경계문제, 묘지 문제 등이다. 최근에 태양광 시설이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에코유지엄"을 지향하는 정책과도 맞지 않다. 제지를 하고자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완화를 해서 문제이다. 뉴스에서 이런 문제점을 다루어졌으면 좋겠다(이상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는데 에너지와 환경, 투자, 개발 등 여러 요소가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해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교양	"금강보호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라디오에서 진행하였다. 문화 관련 캠페인도 새롭게 시도를 해 보았으면 한다(이상진).	캠페인의 경우 협찬처와 연관이 있어 주제 교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해를 바란다.		○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에서 소외 계층, 나눔 실천 노력을 보여주는 코너가 사라져 아쉽다. 예전에는 다루었는데 현재는 빠졌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인간미와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강은혜).	담당 제작자들과 지적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기타	조직의 발전에는 세 가지 동력. 미래 비전, 혁신적 마인드, 구성원 열정을 꼽을 수 있다. 첫 글자 따면 V.I.P. 카이스트도 개교 47년을 맞아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카이스트와 대한민국의 기적 비결을 물을 때 답변은 세 가지 동력이다. 대전MBC도 비전과 혁신, 열정을 가지고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신상철).	대전MBC는 자사 출신 사장을 맞이하여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기 위한 콘텐츠, 문화행사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사 내부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끌어 오르기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미래비전, 혁신적 마인드, 구성원 열정을 조직과 접목 가일층 노력하겠다.		○
보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카이스트와 함께 과학콘서트를 5월에서 7월 말까지 개최를 한다. 특허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특허관련 보도를 해주었으면 한다(신성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권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허법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이미 기사로 처리했으며 관련 행사도 적극 보도하도록 하겠다.		○